

보도시점 **즉시 보도 가능** 배포 2025. 6. 11.(수)

김의 날 기념식 참석하고, 김 산업 종사자 노고 격려

- 송명달 해수부 차관,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열린 제14회 ‘김의 날’ 기념식 참석 -

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1일(수)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‘제14회 김의 날’ 기념식에 참석해 김 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.

(사)한국김산업연합회는 김 생산여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2년부터 ‘김의 날’ 기념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. 이번 행사에서는 김 수출 확대 및 가격 안정화, 어촌 활성화 등에 기여한 김 산업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, 으뜸 김 전시, 수출 활성화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.

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약 1.3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. 정부는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0월, ‘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’을 발표하였으며, 양식에서부터 가공,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 또한,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물가 및 수급 동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.

송 차관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“그동안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김 생산에 앞장선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.”라며, “새 정부도 김 산업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현장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김의 날>	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	책임자	과 장	도윤정	(044-200-56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우진	(044-200-5631)